

새정치 '빅3' 당권레이스 '호남 구애'로 시작

문재인, 1박2일 일정 전북행...당권 강력 의지 피력할 듯 박지원, 광주 방문후 서울·경기 지역위원장들 의견 수렴 정세균, 여수·고흥·보성·강진·해남서 잇단 당원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 경선 룰을 확정함과 동시에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박지원·정세균·문재인 의원 등 이른바 '빅3' 예비후보는 승부처를 호남에 두고 '호남 구애'에 공을 들였다.

이들 후보들은 전남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한 뒤 첫 방문지를 모두 호남으로 선택했다.

이들의 호남행은 당의 심장부 격인 호남의 지지를 얻어야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의 현재 당원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당원들도 대부분 호남 출신

이란 점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됐다.

정세균 의원은 18일 여수를 시작으로 고흥·보성·강진·해남을 잇따라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1박2일 전남지역 강행군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당원 간담회에서 "전대 흐름이 친노(친노무현) 대 비노(비노무현)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이야기는 결국 당을 죽이는 길"이라며 "이번 전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총선 승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당 대표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직 사퇴로 전대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문재인 의원도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문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권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을 단합시켜 다시 일으켜 세우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만류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다음 대선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마 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의원은 특히 호남지역에서의 신당 창당설과 관련, "분당이라는 게 그렇게 지지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쟁국면에서 그것이 하나의 이기기 위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저는 악용되고 있는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또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게 저는 호남이 당권을 가져야 복원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본다"며 "호남이 가지고 있는 진부성이나 개혁성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진부가 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두 주자에 앞서 전남 이미 광주를 다녀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경기의 지역위원회를 돌며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당 대표가 되려는 목표는 친노·비노 대결을 청산해 당 분열을 막고 정권교체를 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탕평 인사,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빅3'가 이처럼 전대 행보에 나서자 이들의 불출마를 권유했던 의원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등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빅3' 불출마론을 주장한 한 재선 의원은 "당의 변화나 혁신을 위해 파벌, 분파를 청산하는 길을 터놓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는데 이렇게 됐으니 일단 오늘 의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이에선 성명을 내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정세균 불출마해도 나는 출마하겠다”

박지원 “대권후보 당권 잡으면 당 초토화”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도전을 피력한 박지원 의원은 “대권후보가 당권 잡으면 당이 초토화된다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의원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17일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권도 잡고 대권도 잡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권을 잡으면) 다른 대권 후보가 가만 있었느냐”면서 “집권을 위해서는 대권 후보가 당권에 나서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당대표 임기는 2년이고, 대선은 3년 뒤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가한 이야기다”라며 “대선후보는 지금부터 국민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몸과 마음을 섞어 나가야 한다. 국민검증, 당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세균 의원 등 이른바 '빅3'의 당권 불출마론이 제기되고 있고 두 사람은 세사람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확인된 바 없다”면서 “설령 두 사람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 뜻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했다.

출마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새 비대위원 구성과 전당대회 룰(규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중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출마 배경으로 “우리의 목표는 집권이다. 일부에서 신당론이 제기되고 있고, 친노는 안된다 등 다양한 말이 나온다. (우리가) 분열해 패배할 수 없다. 통합 단결해서 승리하는 것이 김대중(DJ)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을 하는데는 호남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호남이 빠져도 역시 승리할 수 없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되고 밀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집권을 위해서는 500만명의 호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과 경상도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00만 호남 향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대표의 경험과 경륜, 야성(野性), 통합과 협상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자신이 집권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한 뒤 “대권 도전에는 생각이 없다, 다만 우리가 집권을 하는데 토대를 만드는 데 밀려들어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개헌담론’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대안담론포럼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박혜자 추대 움직임...전남, 이윤석·김영록·황주홍 3파전

새정치 시도당위원장 내달 선출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내년 1월 초·중순께 전국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에는 박혜자 의원(서구갑)의 추대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현직인 이윤석 의원이 연임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재선의 김영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조선의 황주홍 의원도 거론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광주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새로운 시

도당위원장에 박혜자 의원이 적절하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시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박혜자 의원이 현재 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에게 양보하면서 다음번 위원장을 맡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당위원장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의원들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시당위원장을 맡지 않은 광주 국회의원들은 박주선, 강기정, 권은희 의원이지만 박 의원과 강 의원은 3선에 최고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권 의원은 올해에 국회에 진출한 새내기라는 점에서 시당위원장에 적절치 않다는

평이다. 특히, 박혜자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여성 국회의원 최초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차기 시당위원장은 박혜자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이런 흐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남도당 위원장 선출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직인 이윤석 의원이 연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재선의 김영록 의원, 조선의 황주홍 의원이 새로운 도당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석 의원은 “전남도당 당사 마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가 남아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남 국회의원들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대나 경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2일 회동에서 최종적 결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남 국회의원들은 22일 회동에서 2·8 전대에서의 지도부 경선과 관련, 전남 주자들에게 대한 지지 및 역량 결집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경남 “광주시, 광주FC 활성화 나서야”

광주시의회 주경남(새·서구 4) 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광주FC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는 전 방위적 스폰서를 발굴하고 1부 리그 승격에 걸맞게 구단운영 전반에 대해 조직운영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FC가 3년만에 1부리그로 승격된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내년도 운영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광주FC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안내

연구개발에서 제품생산까지, 생산기술혁신형 창업보육시스템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술주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드립니다.

- 입 주 자 격: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기업
- 모 집 분 야: 부품소재, 광에너지, 나노기술, 금형기술
- 접 수 기 간: 연중 수시 모집(2015년 1월 9일 1차 마감)
- 입 주 절 차: 입주신청서 접수(2015.1.9.) → 창업운영위원회 심의(사업타당성평가) (2015.1.20.) →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 (2015. 2. 01.)
- 입 주 기 간: 최초 2년(1년 단위 최장 3회 연장 가능)
- 신 청 방 법: 홈페이지 (www.gjk.re.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문 의 및 접 수 처: TEL : 062)600-6423, jws1003@kitech.re.kr 500-48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창업보육센터

KITECH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시험생산(tryout)센터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세대안리는안리로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착한소장수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싹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브랜드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